로컬뉴스

김제경찰서 지평선축제 교통관리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지난달 29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벽골제일원에서 5일간 연70만 관광객이 방문한 제18회 김제지평선 축제 관광객들의 안전과 선진화된 교통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평선축제는 1일 방문객이 14만명으로 예상되는 주요행사로 다수의 관광객 방문으로 행사장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되어 우회로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경찰의 역량을 집중, 소통 및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했다.

우선 교통체증지역에 교통경찰을 선점 배치하고 수신호 및 차량증감에 따라 신호기 제어등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체증에 따른 신속대응을 위해 싸이카를 운용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만전을 기했다.

김수찬 교통관리계장은 "지평선축제 방문에 방문객들이 만족하는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교통근무자를 배치하여 사고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위로 교통관리를 실시하고 앞으로 각종 지역행사에 시민과 관광객의 교통정체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벽골제서 부산 자원봉사자 50여명 해피통통 볼런투어 참여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해피통통(소통+Free통) 볼런투어' 프로그램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김제벽골제 일원에서 진행됐다.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주관하고 전북도와 김제시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자매도시인 부산영도구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했다.

김제시와 부산영도구는 지난 6월, 2일 우호협력을 맺고 이를 기념하고 뜻 깊게 맞이하고자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센터장 정창섭)와 영도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주석진)가 손을 맞잡았다.

이날 행사는 영도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 50여명이 참여하여 크레파스 만들기 봉사활동 및 김제지평선축제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 불법어업 집중 지도

부안군은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가을철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간에 관내 해역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 인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10월 한 달 동안 해상 및 육상 불법어업 집중 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군은 수산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매년 가을철 반복 되는 멸치잡이 외지어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특히 군은 관내 해역에서 이뤄지는 무허가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 고기 불법 포획·유통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할 계획이며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해상 뿐만 아니라 항 포구, 위판장, 내수면까지 육상단속도 집중 단속한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 하서면 코스모스 꽃길 조성

부안군 하서면(면장 이동근)이 본격적인 가을관광철을 맞아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려고 가로변 30여 개 꽃 박스에 꽃양배추를 식재했다.특히 하서면은 이번에 식재한 꽃양배추가 최근 만개한 하서면 진입도로 군도 19호선(대교↔신 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추억·낭만·사랑 가득한 코스모스 꽃길(10km)'과 연계돼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하고 삭막한 거리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동근 하서면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위해 꽃향기 그윽한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 쾌적하고 활기찬 하서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농경문화의 모든 것' 지평선 축제 성료

벽골제 쌍룡, 축제 랜드마크로 재탄생… 폐막은 '농악' 주제 공연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벽골제를 비롯한 김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세계 속의 지평선! 세계로 향하는 지평선!'이라는 슬로건으로 5일간 펼쳐진 올해 축제는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글로벌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시기로 6개 분야 60개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준비하여 5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2년 연속 열린 벽골제 쌍룡 조형물에서의 개, 폐막행사를 통해 벽골제 쌍룡이 지평선의 고장 김제와 지평선축제의 진정한 랜드마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정희운 제전위원장의 개막선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막이 오른 가운데 개막기획공연에서는 벽골제 설화에 바탕을 둔 '새로운 도약, 새 지평을 열다!'라는 개막기획공연을 통해 벽골제의 기원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이달 3일에는 '농자천하두레놀이'라는 폐막주제공연과 국악인 오정해의 국악공연으로 대동 한마당을 연출하여 '국악'이라는 전통음악을 통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가장 한국스러운 축제로 세계를 향한 축제 한류 연출을 위해 준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연계한 대규모 이슈이벤트', '일본인 관광객을 위한 백제문화권 축제상품', '국제친선클럽,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팸투어'와 함께 UN에서 '3년 연속 농업 관련의 해' 선정에 따른 종자홍보 체험관 등 운영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농업의 중요성을 알릴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제지평선축제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인 '풍년기원 입석줄다리기'와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벽골제 쌍룡 횃불 퍼레이드'는 알찬

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구성으로 한껏 업그레이드되어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대동 한마당을 연출하였으며, 전통농경문화를 축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 '모락모락! 아궁이 쌀밥짓기 체험', '도롱이 워터터널', '대동 연날리기', '벼베기 농촌체험', '지평선 농촌풍경 그리기 대회', '황금들녘 달구지 여행', '지평선 목장 나들이' 등도 축제를 통한 향수와 배움의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김제지평선축제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전환을 위해 농촌마을 체험과 숙박이 어우러진 '농촌에서의 하루', '지평선팜스테이', '금산사 템플스테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 위주의 '징게쟁이 전시·체험관'과 '생태놀이 체험장'이 축제기간 내내 상시 운영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마련한 수상마당의 프로그램 확대와 주야간 상시적 운영을 위한 야간 경관조명이 확대 운영되었으며, 공간별 주제에 맞는 디스플레이 연출과 야간 체류형 프로그램의 수시 운영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벽골제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농경사주제관의 외벽에 농경문화 이미지를 삽입하였으며, 주제관 옆 농지에는 유색벼를 활용한 대지아트를 조성했다.

여기에 더해 축제장 곳곳에 대형으로 짚 조형물과 윈드배너, 토피어리 조형물 설치와 '김제 벽골제 야행(夜行)'이라는 주제로 야경(夜景), 야사(夜史), 야화(夜華), 야로(夜路)의 4가지 볼거리를 마련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축제장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었다.

올해에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예년과 달라진 편의시설 확충 등 축제 인프라 개선이 눈에 띄었다.

대중교통 이용 유도를 통한 권역별 셔틀버스와 주차시설이 확대 운영되고, 코레일과 연계한 임시열차 운행과 외국인 전용 수도권 셔틀버스 운행으로 수도권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축제장 방문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신정문(벽골지문) 연접 주차공간과 행사장을 연결할 지하보도가 신설되었다.

또한 휠체어와 유모차 전용부스, 이동식 화장실, 통역요원의 확대 운영과 쉼터 및 안전펜스 확대와 미아방지를 위한 명찰 등 세심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 대표축제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다.

관광객들의 축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축제 홈페이지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신설하였으며, 축제 스마트폰 앱 보완과 퓨전 마당놀이 '조선으로 떠나는 여행 신관사또전' 연출을 통해 젊은층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우천시를 대비하여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실내체육관, 농경사주제관을 활용한 우천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4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 주신 10만 김제시민과 축제장을 방문해 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김제지평선축제를 통해 김제를 알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김제의 미래를 위한 또 다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문 보조공학사 4명을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 파견, 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동 보조기구 점검과 세척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서비스를 받은 한 이용자는 "휠체어가 비싸기도 하고, 고장 날 경우 수리할 곳이 멀어 비용 부담도 컸는데, 직접 방문해서 점검과 세척을 해주고 1:1 맞춤형 상담까지 경제적 부담 해소 등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 무료 이동 보조기구 점검·세척

전북보조기구센터 주관, 39명의 기구 점검 17종의 보조기구 전시

전북도보조기구센터(신현욱 센터장)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전문 보조공학사 4명을 정읍시장애인복지관에 파견, 복지관 이용 대상자를 대상으로 '무료 이동 보조기구 점검과 세척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39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17종의 보조기구를 전시운영하고, 전문 보조공학사가 1:1 맞춤형 상담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서비스를 받은 한 이용자는 "휠체어가 비싸기도 하고, 고장 날 경우 수리할 곳이 멀어 비용 부담도 컸는데, 직접 방문해서 점검과 세척을 해주고 1:1 맞춤형 상담까지 경제적 부담 해소 등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정읍시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보조기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독립생활을 하고 원활한 사회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기관이다.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적용과 훈련, 그리고 개인 맞춤형 개조와 제작 등의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 선진지 견학은 6차 산업을 통한 미래농업의 희망 창출을 하려고 추진됐다.

부안 주산면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경쟁력 향상 위해 수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로

부안군 주산면 농촌지도자 회 윤대진 회장과 농촌지도자들이 농업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졌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지도자의 발전적 마인드 함양과 농촌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6차 산업을 통한 미래농업의 희망 창출을 하려고 추진됐다.

주 산면 농촌지도자 회 회원들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를 찾아 다양한 벼 품종 비교를 통한 장·단점을 파악하고 부안군에 적합한 품종을 찾기 위한 토의를 가졌다.

채종남 주산 면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주 산면이 새로운 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지역으로 발돋움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농민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이번교육은 보령시 비치팰리스에서 복숭아연구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고품질 복숭아 생산위해 최선을 다해"

정읍복숭아연구회 역량강화교육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는 지난달 28~29일(2일간) 보령시 비치팰리스에서 복숭아연구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최고품질 과실종합관리 역량강화교육과 함께 본사업의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복숭아 수형관리 및 고품질 과실생산(원예특작과학원 김성종 연구관), 복숭아 다수확 교육(충주시농업기술센터 김재건 팀장), 우리 농업의 현실인식 및 위기대응 전략(주식회사 직거래 대표 김석) 등 재배기술분야, 농업혁신분야, 연구회활성화분야로 알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회원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여 최고품질의 복숭아를 생산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복숭아 연구회(회장 전방완)는 '최고품질 과실종합관리 시범사업'은 정읍복숭아연구회원들의 재배기술뿐만 아니라 생력재배를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되었다고 자체평가 하였다.

또한 지난 8월에 실시한 정읍복숭아 시식홍보행사는 '정읍달하복숭아'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내년도에도 판매에 자신이 생겼다고 하였다.

기술센터관계자는 "최고품질 과실종합관리 시범사업으로 정읍복숭아연구회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농자재, 생력재배 농기자재, 홍보행사 등 1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정읍복숭아를 최고품질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번 역량강화교육으로 2년간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다."고 하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역통합방위 화랑훈련 '성료'

정읍시, 안보의식 함양 목표

정읍시는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민·관·군·경 지역 통합방위 확립을 위한 2016년 화랑훈련을 실시했다.

시가 중심이 되어 실시한 이번 훈련은 통합방위 작전태세 확립과 지역주민의 확고한 안보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실시됐다.

훈련에는 제8098부대 4대대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 정읍교도소, 아산재단정읍병원 등 훈련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훈련기간에는 정읍역 폭발물 테러사건 초동대처와 상황 전파, 정읍교도소 화재 발생과 사상자 구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골목마켓 등 생필품시장의 쌀, 라면, 물 등 매점매석행위 급증에 따른 사재기 행위 단속과 식료품 제한 공급제 실시, 상두산 일대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와 화재 진압, 시청 민원실 화재 발생에 따른 민원인 대피 등 상황별 훈련이 실시 됐다.

이번 훈련은 특히 군·경 통합 방위작전 절차 숙달과 주민들의 비상 시 주민 행동요령 숙지, 통합방위사태 정보 전달을 위한 신속한 상황 전파, 주민신고체계 강화, 긴급인명구조 역량강화, 전시 생필품 시장의 안정화, 민심 수습과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화재 이재민 구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시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생기 시장은 "지역방위는 민·관·군·경 모두가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곧 지역방위다"고 강조 했다.

/정읍=김대환기자